

Osteotome technique을 이용한 상악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

이 승 철 원장

해바라기 치과의원

상악 구치부 상실의 경우에는 상악동의 함기화와 치조골의 흡수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저밀도의 골질로 인해 임플란트의 stabilization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상악 구치부에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방법으로는 lateral window approach를 통한 sinus elevation과 crestal approach를 통한 socket lift의 방법이 소개되어 왔다. osteotome을 이용하여 상악동저를 거상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socket lifting은 술식이 용이하고 식립 예정부위의 골밀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증례들에서는 상악동저까지의 잔존골량이 6-8mm인 경우에서 osteotome technique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양호한 임플란트/치관 비율을 위해 상악동 막에 대한 거상을 시행하였고 drilling을 최소화하면서 osteotome을 이용하여 잔존골에 lateral compression을 가함으로써 골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술 전에 상악동염 등의 환자 평가와 잔존골량의 평가, 막을 천공시키지 않는 세심한 수술이 행해진다면 osteotome을 이용하여 골질의 개선과 더불어 외과적으로 덜 침습적이며 보전적인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것이다.

- *이승철 원장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원광대학교 치주과 수료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 해바라기 치과병원 원장